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여가 공간 활용 방안 -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과 지역 여가 공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

An Application Plan of the Experience-centered Leisure Space Using Community Resources

- Focusing on the Connection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Facilities with the Community Leisure Space -

염두승*(강원대학교) · 윤상문(강원대학교) · 석혁기(강원도립대학교)

Yeom, Doo-Seoung*(Kangwon National Univ.) · Yoon, Sang-Moon(Kangwon National Univ.) · Seok, Hyuk-Ki(Gangwon State Univ.)

요약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올림픽 특구와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여가 공간의 활용 방안을 검토한 이론적 고찰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설상 종목이 개최되는 지역으로 알펜시아리조트를 중심으로 개·폐회식장과 선수촌, 국제방송센터 등 올림픽시설과 연계해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대 목장인 삼양목장을 중심으로 1차(목축)+2차(낙농제품)+3차(관광) 산업이 결합한 6차 산업으로 시도하는 대관령 자연순응형 휴양단지 조성계획과 오대산 국립공원, 평창읍 한우마을 등을 연계한 지역의 여가 공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코스가 개발되어 제시 되었다. 둘째, 빙상 종목이 개최되는 지역으로 강릉의 전통과 문화·예술 기반 위에 동계올림픽을 결합한 사계절 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빙상 경기장과 올림픽아트센터, 지구 내 위치한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강릉지역 동계올림픽 핵심지구가 될 전망이다.

핵심용어: 지역사회, 자원, 여가공간, 동계올림픽 시설, 건강올림픽 특구, 문화올림픽 특구

Abstract This study carried out a theoretical consideration that examined an application method of leisure space through connecting the Olympic zone of a region and the community resource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task.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uggestion of a plan for developing and connecting a leisure-activity program course with the application of leisure space among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facilities and the community resources within the Pyeongchang Health Olympics complex zone. Second, there is a suggestion of a plan for developing and connecting a leisure-activity program course with the application of leisure space among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facilities and the community resources within the Gangneung Culture Olympics complex zone.

Key words: Community, Resources, Leisure Space, Olympic Winter Games facilities, Health Olympic Comprehensive Special Zone, Cultural Olympics Comprehensive Special Zone

* yds0562@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3902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은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역 스스로가 중앙정부나 외부에 의존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생적 활성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조금묵, 2009).

지역발전이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가시적 혹은 유형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제 할 때 지역 활성화는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직접적으로 유도되거나 그 여건이 개선 될 수도 있지만 내부적 동기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성취되기도 하고 때로는 외부적 요인을 흡수·수용하여 지역의 활력을 확대·심화 시킬 수 도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인위적인 지역 균형 발전에 집착하여 지역별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추진되어 온 공공부문의 투자 방식으로 산업발전 및 고용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상호, 정행득, 박철수, 2009).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패러다임이 급하게 요청되고 있다(강현욱, 전태준, 2009).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개발을 위한 매우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특유의 이벤트를 개발하여 상품화를 시도 하고 있으며, 특히 이벤트 전략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주관하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독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을 유도하여 해당지역의 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개발을 이루고자 하며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추어 지방자치 단체들은 수도권 도시들과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포츠를 적극 활용 하고 있다(지현진, 김진희, 2009).

지역 발전에 있어서 스포츠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역주민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자치 의식 및 자치능력 제고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육시설 설치, 환경정비 및 개선, 낙후지역 개발, 등의 종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지역개발 효과를 보이고 있다(조금묵, 2009).

강원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어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은 물론 세계적으로 강원도의 위상을 한층 제고 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류천훈, 2013).

이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스포츠이벤트 붐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제3의 미디어로서, 스포츠이벤트는 3류(物流, 人流, 信流)의 중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고도 정보화 사회를 향하여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이벤트 개최에 따른 여러 목적과 효과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Richards, 1996).

이토록 국가와 지자체에서의 스포츠이벤트에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이유는 인근 지역에 인프라가 구축되며,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소비지출을 끌어내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매개체이며 지역민들의 자긍심과 유대관계를 개선시키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이상행, 안용재, 2012). 또한 지역주민의 협력은 정서적·심미적 욕구충족은 물론 지역을 위한 창의성과 혁신성을 함양하고,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강환, 1996), 이를 통해 지역은 주민의 소득증대, 고용창출, 스포츠산업 육성, 국제적 교류 등의 지역발전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다(김명준, 김은식, 2006).

이러한 스포츠이벤트를 지역사회의 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여가 공간 활용이 중요한 요소인데 여가 공간(leisure space)은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물리적 자원으로, 생활의 구속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즐겁게 여가선용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여가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여가활동 주체의 움직임 및 이용특성에 따라 공간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국토연구원, 2002).

또한 여가공간은 휴식, 산책 등의 정적인 활동과 유희, 향락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지는 '복합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문경일, 2002).

따라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요소가 발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여가 공간과 동계올림픽 시설의 연계를 통한 여가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여가 공간 활용 방안을 알아보고자 구체적인 조건과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부와 강원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해 관광·문화·주거·산업 기능이 융·복합한 '올림픽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준비한 동계올림픽 특구를 기본 모델로 하여 지역의 올림픽 특구와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여가 공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분석 방법(data research analysis method)과 내용 분석적 방법(content analysis method)을 통한 분석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논문, 서적, 간행물, 보도자료,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문헌조사 분석 방법(data research analysis method)을 실시하였다.

둘째, 올림픽 특구와 그 지역의 여가 공간 현황과 분석

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와 개발계획, 관련 문헌 및 연구자료, 보도자료 등에 대한 내용 분석적 방법(content analysis method)을 실시하였다.

II. 지역사회 여가자원 활용 근거

최근 지방화시대에 스포츠의 역할은 스포츠를 통하여 인간생활에 질적인 삶을 가져옴으로써 사회전체의 질을 높이고 조화적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스포츠를 통한 지역개발의 경제적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지역 고유의 스포츠이벤트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임상호, 2008).

국외의 경우 지역적 스포츠이벤트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Getz, 1998; Gibson, 1999; Krohn, 1998; Nogwa, Yamaguchi & Hagi, 1996).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스포츠이벤트와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고영규, 2007; 김무진, 2008; 김민철, 2007; 김효명, 2010; 류천훈, 2013; 이재형, 2007), 지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연구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은식, 2006; 김태형, 2008; 마체리, 2009; 임상호, 2008).

최근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여가생활의 변화로 여가 공간의 활용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계획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선진국의 경우에는 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 자원의 공급, 여가 공간과 여가 환경의 정비, 여가 시설의 제공 등 다방면의 접근을 활용하고 있고 여가 공간과 환경을 포함한 여가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여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2008).

이렇듯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과 여가 공간의 활용은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책임의 분담을 인식시켜

주고 주민의 협력과 지지를 구해, 지역사회 자원과 여가 공간 활용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합의가 기본적인 일이며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지역의 환경적 특성, 주민의 가치관과 자긍심 등 지역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콘텐츠 중심의 질적 여가공간 확충

국민들 중 70% 정도가 현재의 여가생활에 불만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가공간의 양적·물리적 확충보다는 질적확충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의 발굴과 보급이 선행되어야 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2. 공적 여가공간으로서의 오픈 스페이스(open-spaces) 확충

여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가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부담과 시간 제한이 주요한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여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여가공간이 요구되며, 비용이 소비되지 않으나 국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공원 등의 ‘공적 오픈 스페이스’의 확충이 요구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3. 시간 및 비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장애 여가공간 확충

여가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시간부족 및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주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풍부하나,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더 가중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일반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여가공간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소득 계층간 여가공간의 이용률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4.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공간 구축

여가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시간부족의 요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접근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생활권내에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말 및 휴일에 비해 평일의 여가활동 비율이 매우 낮아 일터 및 삶터와 근접한 혹은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충이 요구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5. 도시 내 유희공간의 여가공간 활용 확대

여가공간의 양적 측면은 일정수준 이상 충족되었으나, 이용밀도가 높은 특정 시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신규 여가공간을 무리하게 조성하기 보다는 도시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유희공간은 물리적 정비 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옥외 여가공간의 경우 체험학습, 환경교육 등을 접목한 이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초·중·고등학교와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III. 올림픽 특구와 지역의 여가 공간 현황과 분석

1.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특구 위치도



그림 1.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위치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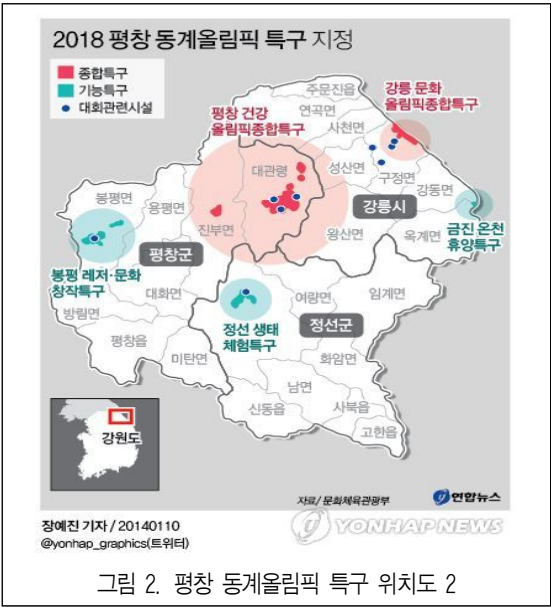


그림 2.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위치도 2

2.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특구 현황

올림픽 특구는 입지특성과 보유자원, 올림픽대회 시기 등에 따라 5개 특구, 11개 단위개발 사업지구로 나누어 개발한다. 올림픽 특구는 2018년까지 1단계, 2032년까지 2단계로 국비 3천641억원, 지방비 2천828억원, 민간자본 2조3천594억원을 투자한다. 평창과 강릉·정선 등 3개 시·군의 5개 특구, 11개 지구의 총 27.4km²를 개발한다. 여의도 면적 2.9km²의 9.5배 규모이고, 5개 특구는 평창군 대관령·진부면의 건강올림픽특구 5개 지구 16.8km², 강릉시 교동 일대 문화올림픽특구 2개 지구 2.8km², 평창군 봉평면의 레저·문화창작특구 2개 지구 3.7km², 강릉시 옥계면의 금진온천휴양특구 1개 지구 0.2km², 정선군 북평면의 생태체험특구 1개 지구 3.9km²이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강원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시·군 또는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건설사업자 등을 지정·시행하는 공공과 민간 개발방식을 병행하며 특구 및 단위개발 사업지구별로 시행한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3. 올림픽 특구와 지역 여가활용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 올림픽특구 지정 및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년간 지역 총생산 10조4천683억원 증가와 26만4천39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평창 건강올림픽특구와 강릉 문화올림픽특구는 종합특구로,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와 금진 온천휴양특구, 정선생태체험특구는 기능특구로 다음과 같다.

1)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16.8km², 5개 지구)

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 및 건강휴양도시 조성을
목표로 조성한다.

알펜시아리조트를 중심으로 개·폐회식장과 선수촌, 국제방송센터 등 올림픽시설과 연계해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아시아 최대 목장인 삼양목장을 중심으로 1차(목축)+2차(낙농제품)+3차(관광)산업이 결합한 6차 산업으로 시도하는 대관령 자연순응형 휴양단지 조성계획이 눈여겨 볼만하다.

2)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강릉의 전통과 문화·예술 기반 위에 동계올림픽을 결합한 사계절 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한다. 빙상경기장과 올림픽아트센터, 지구 내 위치한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강릉지역 동계올림픽 핵심지가 될 전망이다. 올림픽 관광·숙박지구로 올림픽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동북아 사계절 관광거점으로 개발한다.

3) 평창 봉평레저·문화창작특구

보광휘닉스파크와 인근 이효석 문화마을을 대상으로 수도권 시장을 겨냥한 레저·엔터테인먼트·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 효석 문화예술촌과 창작공방 체험관, 예술인촌, 플라워가든 조성, 봉평시까지 정비를 구상 중이다.

4) 강릉 금진온천휴양특구

민간자본을 유치해 임상효과가 입증된 해양·온천자원을 활용, 사계절 스포츠의료, 관광기반의 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한다. 올림픽대회 시 선수단 숙소 및 재활센터로 활

용하는 등 외국인 의료관광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5) 정선생태체험특구

우수한 산림자원의 활용과 보존을 위해 산악캠핑장과 수목원, 생태체험·교육시설, 공공편익 시설 등이 들어선다. 경기장 건설에 따른 보상주민 이주단지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6) 올림픽 아리바우길

평창 올림픽을 기념해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올림픽 아리바우길(정선, 평창, 강릉)이 조성됐다.

모두 9개의 코스로 전체 길이는 131.7Km로 조성되었고 올림픽은 평창, 아리는 정선의 아리랑, 바우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인 강릉바우길을 따왔다.

올림픽 아리바우길은 세 고장의 명소를 두루 짚는데 정선 아리랑시장, 아루라지, 정선 레일바이크, 백두대간, 대관령 옛길, 오죽헌, 경포호수, 강문해변 등 산과 바다, 호수 시장과 유적을 두루 아우른다. 이는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두 발로 찾아 다닌다는 점에서 새로운 강원도 여행법이자 뜻 깊은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정부와 강원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해 관광·문화·주거·산업 기능이 융·복합한 '올림픽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준비한 동계올림픽 5개 특구 중에서 동계올림픽 시설이 집중 되어 있는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와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안에서 지역사회 자원과 여가 공간을 활용한 여가 프로그램 코스 개발과 연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외부 관광객과 지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흥미를 유발시킴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여가 공간 등의 지역의 문화 자원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주민의 소득증대, 고용창출, 스포츠산업 육성, 국제적 교류 등의 지역발전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이러한 것들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과 여가 공간 활용의 창의적인 내용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올림픽 특구와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여가 공간의 활용 방안을 검토한 이론적 고찰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과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내의 지역사회 자원 중 여가 공간을 활용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코스 개발 및 연계 방안 제시

설상 종목이 개최되는 지역으로 알펜시아리조트를 중심으로 개·폐회식장과 선수촌, 국제방송센터 등 올림픽 시설과 연계해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대 목장인 삼양목장을 중심으로 1차(목축)+2차(낙농제품)+3차(관광) 산업이 결합한 6차 산업으로 시도하는 대관령 자연순응형 휴양단지 조성계획과 오대산 국립공원, 평창읍 한우마을 등을 연계한 지역의 여가 공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코스가 개발되어 제시하였다.

둘째,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과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내의 지역사회 자원 중 여가 공간을 활용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코스 개발 및 연계 방안 제시

빙상 종목이 개최되는 지역으로 강릉의 전통과 문화·예술 기반 위에 동계올림픽을 결합한 사계절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빙상 경기장과 올림픽 아트센터, 지구 내 위치한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강릉지역 동계올림픽 핵심지구가 될 전망이다. 또한 강릉시의 맞춤형여행, 경포팔경, 강릉팔경, 권역별 여행 등의 지역자원과 동계 올림픽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여가 공간 프로그램을 제시 하였다.

참고문헌

- 강현옥, 전태준(2009). 21세기 여가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전략. **제5회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춘천 국제여가심포지엄**.
- 고영규(200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스포츠이벤트의 효율적 전개 방안. **한국체육과학회지**, 16(1), 21-337.
- 국토연구원(2002). **통합 선진국가 실현을 위한 국토정책 과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김명준, 김은식(2006). 지역주민의 스포츠이벤트 유치 중요도 평가와 공동체 의식 및 협력의사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3), 357-372.
- 김무진(2008). **메가스포츠이벤트 유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김민철(2007). 지역주민의 스포츠이벤트 관심도가 지역 경제 변동 및 지역 SOC의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6(3), 187-197.
- 김은식(2006). **스포츠이벤트 유치와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태형(2008). **리조트개발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효명(2010). **지역 스포츠산업 경쟁력이 스포츠이벤트 참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류천훈(2013). **평창 동계올림픽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 간 산업 연관표 작성 분석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대학원.
- 마채리(2009). **스포츠 메가이벤트와 SOC의식변화 및 스포츠문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문경일(2002). **도시 여가공간으로서의 고궁 이용 특성과 이용가치평가: 서울 4대 고궁 사례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상호, 정행득, 박철수(2009). 지역경제 특화 발전전략: 지역특구를 중심으로. **응용경제**, 10(2), 177-201.
- 이상행, 안용재(2012). 지역스포츠이벤트 유치가 개최지 지역발전, SOC의식변화 및 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1(5), 77-87.
- 이재형(2007). 메가 스포츠이벤트 유치와 관련한 유치효과 및 지역갈등이 협력효과와 총체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0, 315-329.
- 임상호(2008). **태권도이벤트에 대한 지역사회 의식 및 협력의사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정강한(1996). 지역축제의 관광 상품화 및 이벤트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지역축제의 과제와 전망. **한국향토사 연구 전국협의회 제7차 심포지엄**.
- 조금묵(2010). **강원 양구지역 여가공간을 활용한 전지훈련지 활성화 방안**.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지현진, 김진희(2009). 여가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시 발전 전략 탐색.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3), 171-180.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여가공간의 정책적 유형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여가 그리고 정책**. 서울: 대왕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7). **지방화시대의 지역 활성화와 새마을 운동**.
- Getz, D. (1998). Trends, Strategies, and Issues in Sport-event Tourism. *Sports Marketing Quarterly*, 7(2), 218-224.
- Gibson, H. J. (1999). Sports tourism: The rule of the game. *Park & Recreation*, 34(36), 36-45.
- Krohn, F. (1998).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influence on attendance at small college sporting events. *College Student Journal*, 32(2), 241-256.
- Nogwa, H., Yamaguchi, Y., & Hagi, Y. (1996). An

empirical research study on Japanness sport tourism in sport-for-all even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5(2), 46-54.

Richards, G. (1996).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uropean cultur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2-11.

-
- 논문제출일: 2018. 02. 10
 - 논문심사일: 2018. 02. 22
 - 게재확정일: 2018. 03. 12